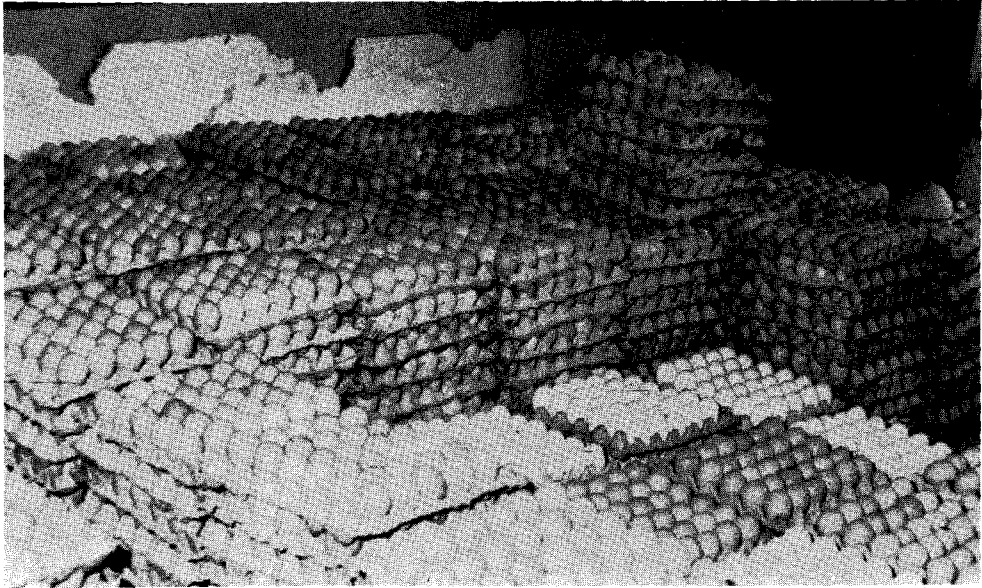


생산조절이 불황타개의 지름길



□ 일시 : 1981년 3월 27일 장소 : 본회 회의실

노영한 : 바쁘신데 시간을 내주시어서 감사합니다. 양돈을 제외한 전체 축산업계가 현재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며 그중에도 채란 양계업이 더욱 심각한 것 같습니다.

본지 지난 3월호에 금년도 전반기 관측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많은 문의 전화가 왔습니다.

과연 채란 양계업은 가까운 시일내에 소생할 가망이 없으며 이러다가 침몰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독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이렇게 불황이 심화된 원인과 이에 대한 우리들의 대책 등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관측 사업을 담당하시는 분, 양계장, 부화장, 사료공장 등에서 나오셨는데 우선 현재 채란 양계업계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잠깐 제가 설명드려서 앞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기업 채란 양계장의 경우 약 2개월 정도의 사료값을 외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2개월 분의 사료값으로 작년 10월 부터의 불황을 견뎌온 것입니다.

10만수 양계장이면 약 1억 4천 만원 이라는 사료빚이 있게 됩니다.

대란의 생산비가 47원이라고 하는데 현재 37원하니 약 10원의 결손이 나고 있습니다.

다. 앞으로 계란 값이 15 원이나 폭등을 하여 준다고 하면 생산비를 제하고 5원의 수익이 생겨 한달에 약 천만원의 수익이 생기게 됩니다. (10만수 × 70% × 5원 × 30일) 즉 15원의 계란값이 올라주어도 한달에 천만원의 이익이 생겨서 빛을 갚으려면 약 14개월이 소요되므로 채란 업체의 회복이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의외로 심각한 사태로까지 발전할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경기회복이 어려운 것으로 관측 결과가 나왔는데 직접 관측업무를 담당하시는 김 과장님께서 관측사업은 어떻게 하는 것이며 어떻게 이용되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관측 결과를 생산조절에 이용해서 가격안정에 목적 있다

김철호: 이번 1/4 분기 관측결과에 대해서 양축가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양축가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관측결과가 실제 그 시기에 가서 그대로 맞는다고 보는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이렇게 되리라고 사전에 예측하였지만 미처 우리가 예기치 못한 경제적인 여건에 의하여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또 사육자들이 관측결과를 보고 앞으로 계속 사육수수가 증가하여 경기가 나쁘면 수수를 줄일 것이기 때문에 관측결과 그대로 된다고 생각하는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아무리 정확히 한다해도 자료의 불확실성 등에 의해서 100% 정확할 수는 없지만 주먹구구식 보다는 훨씬 과학적이고 정확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 석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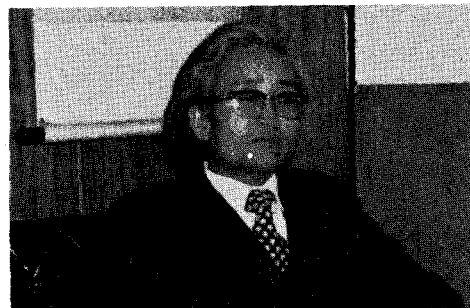
김 철 호 (축협중앙회 경제분석과장)



신 홍 중 (고장양계 대표)



원 응 택 (대한사료 상무이사)



한 명 복 (교하농장)

닭이나 돼지는 번식율이 높고 단기 사육으로 출하가 가능하며 소자본으로도 사육이 가능하여 항상 파잉생산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또 계절적인 수요변동과 가공수요 개발로 상품의 다양화 고급화하고 점차 소득 탄력성이 높아져 경기 변동에 따라서도 수요 변동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항상 가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선진 외국에서는 일찍부터 관측업무를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축협중앙회에서 정부와 협조하여 관측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분기마다 3~6개월 후의 관측결과와 1~2년 후의 관측도 같이 실시할 것입니다.

이 관측결과를 보고 생산자들이 스스로 생산조절을 하므로써 가격을 안정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즉 가격의 폭락이나 폭등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80년도 축진때 해보니 닭의 경우 적중율이 95%까지 되었고 돼지도 98%까지도 적중해 상당히 정확도가 높았습니다.

관측사업은 예를 들면 산란계 사육수수를 추정하려고 할때 기본적인 수수는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주로 결정되나를 찾아내어 그 요인들을 방정식에 집어넣어 컴퓨터를 돌려 계수를 찾아내어 계수를 다시 통계적으로 검정해서 그 계수가 통계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되면 하나의 모델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모델에 앞으로 사육수수 추정에 필요한 것을 대입하여 관측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량 경제적인 관측 방법입니다.

또 정확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실제 사육동향 조사를 매분기마다 하고 있는데 체란계의 경우 대 중 소 규모로 약 1500호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양케이트에 의해 앞으로의 계획 등을 조사

하고, 전문가들의 강한 육감도 참작하여 종합적인 결과를 협의회를 거쳐 관측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노영한 : 감사합니다. 관측업무가 우리가 경험에 의해서 막연히 전망하는 것보다 얼마나 과학적이고 적중율이 높은가를 잘 설명하여 주셨고 이의 이용방법도 양축가들의 이해가 갔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오랜동안 직접 양계장을 경영하여 오신 한 사장님께서 이번 불황이 이렇게 장기화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가격은 시장기능에 맡기고 물은 흐르게 해야

한명복 : 16년전 120마리로 시작해서 지금은 120만 수로 발전 했습니다.

이렇게 발전하기까지는 평탄하게 계속 경기가 좋아서 발전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 불황과 호황을 거치며 대부분의 양계인들이 이렇게 발전해 왔습니다. 이것이 또한 모두 시장기능에 의하여 이루어져 왔습니다.

즉 경기가 좋으면 닭을 많이 키르게 되고, 닭이 많아져서 계란값이 떨어질 땐 잠깐의 고통을 참으며 도태하여 왔습니다.

계란값이 떨어지면 장상군들이 마진이 커지니까 리어카, 광주리를 동원하여 소비자에 방문 판매하게 되고 이래서 계란을 안 먹던 가정도 계란을 먹게 되어 소비는 늘고, 노계의 조기도태로 생산은 감소하여 계란값은 다시 상승하게 되어 다시 입추를하므로써 부화장의 경기도 회복되어 왔습니다. 이래서 부화장의 종란이 시장에 나오지 않게되어 계란값은 더 오르고 노계를 좀 싸게 팔았지만 계란값이 바로 회복되니까 다시 바로 회복하고 오히려 규모를 키워나갔습니다. 이래서 노계와 신계를 교체하는 좋은 계기가 되어 부화장은 병아리를 팔고

상인은 상인대로 돈도 좀 벌게되는 기회가 되었었습니다. 이렇게 불황과 호황이 번갈아 오면서도 남의 돈 쓰지 않고 진실하게 발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작년부터는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계란이 체화되면서도 값이 오르고 비수기인 김장철에도 값이 오르니 생산자들은 이거 무언가 있구나 하고 오판하여 닭수수를 줄이지 않고 늘리게 됩니다 또 노제는 도태보다는 곧 계란값이 오를 것으로 생각하고 환우를 하게됩니다.

계사가 꺾차있으니 새로운 입식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노제와 신제의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화장도 숨이 막히고 종란은 식란으로 판매되어 계란은 더욱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2중가격도 생기게 되어 우리가 스스로 무덤을 파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4월, 5월에는 하고 양계장마다 닭이 팔짝 차있습니다.

6~7월에는 계란값이 좋은 해에도 계란이 체화되는데 금년에는 계란값이 제일 좋아야할 3월에 체화가 되니 6~7월에는 오죽하겠습니까?

이때에 가면 양계업자들이 더 버티지 못하고 닭수수를 대폭 줄이게 될것으로 전망됩니다.

노제 도태의 좋은 기회를 2~3번 놓친 것 같습니다.

소비 신장요인 별로 없어

김철호 : 계란값은 올랐지만 그간 사료값 등 생산비가 많이 상승하여 적자생산을 면치 못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지난 3년간 연말 산란계 사육수수를 보면 4천만 수선으로 줄지를 않고 있습니다 즉 생산은 많은데 반대로 소비 측면을 보면 작년에 경제성장율이 인구증가율을 감

안하면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 금년에도 기획원이 5% 정도의 GNP 성장을 계획하고 있으나 1/4 분기에 제로 성장으로 경기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소비의 증가요인을 찾기어렵습니다.

다만 인구증가율 정도의 소비증가를 기대하나 가계당 소비는 증가하기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의 감축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번 관측도 12월말에 비하여 6월말에 약 3% 정도밖에 감소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금년도에 계란값의 회복 전망은 어둡지 않나 생각됩니다.

한명희 : 많은 양계인들이 끝이 깊으면 산도 높다는 생각으로 어떻게든지 버티어 보자는 생각을 많이하기 때문에 닭수수가 줄지 않는 것 같습니다.

조직적이고 항구적인 안정대책 세워야

신홍중 : 예전에는 병아리 판매수수, 초생추 사료 판매량 등을 가지고 채란계 경기를 예측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작년부터는 전체적인 경기를 좌우할 만큼 환우들을 하고 또 환우도 1회에 그치지 않고 2~3회까지 하므로 경기예측이 어렵습니다.

작년 10월후 2월까지 병아리가 거의 나가지 않다가 2월말에 약간 병아리가 팔리자 몇개월간 병아리가 입식되지 않았으니 이제는 팔리겠지 하고 지금까지 주문생산에서 주문없이 많이 입식을 했다가 요즘 판매에 애들을 먹고 있습니다.

계란 체화를 보면 7~8일분 정도인데 한 사장님 말씀대로 작자가 10%만 닭수수를 줄이면 바로 불황은 해결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유통 문제인데 이런 기회에 유통에 어떤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어야 되겠

입니다. 축협이 주체가 되어도 좋고 하루 빨리 계열생산체제로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현재와 같이 상인들의 잘못된 정보에 피해만 보고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선진 외국에서도 많은 방법을 다 해보았으나 계열생산 체제가 가장 좋은 방법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루빨리 계열화 과정을 밟아야겠습니다.

생각하는 양계를

원용택: 부화장에서는 초생추가 나가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료면에서 보면 초생추, 중, 대추사료가 계속나가고 있어 입식은 계속되고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또 양축가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고 평소에 생각했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초 까지는 사료하면 품질은 다 같으니 값이 싼 것을 구입하자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름 부터는 값이 자율화되고 품질도 회사에 따라 특색을 갖게 되었습니다. 가격과 품질과는 상관관계가 있으니 양축가들께서는 정확한 기록으로 가장 경제적인 사료를 구입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또 무조건 값을 많이 깎으려고 하는 분도 있는 모양인데 이런 경우는 바꾸어 말하면 나쁜 사료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양관리 및 질병에 대한 문제가 아직도 많기 때문에 사료 공장은 억울하게 품질에 대한 원망을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도 생산비 절감의 요인이 많습니다. 이제 생각하는 양계를 해야할 때가 왔습니다. 다음으로 소비문제인데, 임금 인상이 물가상승을 따라가지 못해서 중산층이하가 소비를 하기 어려운 입장을 고려해야겠습

니다. 또 계란이 값싸고 영양분이 많은 줄은 알지만 삶아 먹거나 후라이하는 방법만으로는 소비를 확대할 수 없습니다.

요즈음은 입에 맞는 식품이 많아서 맛이 없으면 학생층에 소비를 늘릴 수 없습니다. 요리 방법도 개발하고 일반 공업용으로 많이 소비되어 알지못하는 사이에 소비가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노영한: 중국 사람들은 국수 반죽을 할 때 물은 한방울도 안넣고 계란으로만 반죽을 해서 국수를 만드는데 우리도 이런 계란소비 방법도 연구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작년과 같이 사료의 외상 경쟁이 이루어지겠는지 원 상무님 말씀해 주세요.

원용택: 이번 판매 경쟁이 된 것은 옥수수 구입문제 등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6월이 되어도 심한 외상 경쟁은 없으리라고 보고있습니다.

더 외상을 줄려고 해도 이제 한계에 달한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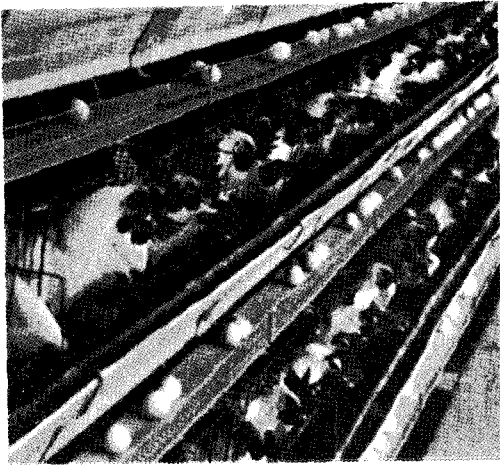
과학적인 양계를 해야 한다

신홍중: 생각하는 양계, 다시 말해서 과학적인 양계를 해야 하겠습니다.

생산비를 절감할 수 요인을 찾기전에, 병아리 품질, 사료품질에 원인을 돌리고 이런 형편에서는 나는 어쩔수 없다고 체념하기 보다는 자기의 결점을 찾아 생산비를 절감해야겠습니다.

방역문제나 생산조절 문제도 남이 해주기를 바라기 보다는 내가 먼저 솔선하여 시행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김철호: 좋은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축협도 장기적으로 축산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업종별 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조직을 할수있게 하여 외국의 계열생산 체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직을 통해 생산조절, 기술지도, 관측을 통해 미리 양축가에 홍보하는 등 앞으로 제도적으로 축산업을 안정 시키는데 노력할 것입니다.

노영한 : 장시간 대단히 감사합니다.

양계 산업이 안정되고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조직적으로 생산조절과 공급조절, 소비자 교육 등이 이루어지고 과학적이고 적절한 가격정책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번 불황을 하루속히 종식시키기 위하여 사료협회와 협조하여 체화된 물량을 해외 소비하는 방법 등이 현재 논의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을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불황이 오면 같은 말을 되풀이하다 경기가 회복되면 잊어버리는 일을 되풀이 하게 됩니다.

이번만은 그렇게 되지 말고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 주 부 화 장



바 브 콕

B-300V



DEKALB

와 렌 G



하 바 드

사무실

전남 광주시 서구 양림동 8-15번지

전화 ⑧ 1107